

제약/바이오

녹십자랩셀/아티바, MSD 와 2 조원대 기술이전 계약 체결

●
제약/바이오
 Analyst 김지하
 02. 6454-4868
 jiha.kim@meritz.co.kr

녹십자랩셀/아티바, MSD와 CAR-NK 플랫폼 기반 기술이전 계약 체결

-녹십자랩셀의 미국 관계사 아티바(Artiva Biotherapeutics)는 글로벌 빅파마 MSD사와 2조원대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

-아티바의 동종 CAR-NK 세포치료제 플랫폼 기술을 이용해 최대 3개의 고품질 암 타겟 후보물질 발굴, MSD가 임상 개발 및 상업화 진행

-최대 2조원대의 계약규모 : 계약금 \$30M(2개 물질), 추가 계약금 \$15M(3번째 물질), 물질 1개당 마일스톤 최대 \$612M 수령 가능
 향후 상업화에 따른 로열티도 수령하며, 연구비 역시 지원받을 수 있음

아티바 바이오테라퓨틱스는?

-녹십자홀딩스와 녹십자랩셀이 NK세포치료제 개발을 위해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. CAR 및 생산 기술을 포함한 녹십자랩셀의 NK세포치료제 기술을 도입함

-'20년 아티바는 \$78M 규모의 시리즈A 펀딩을 성공적으로 유치하며 기업 가치 역시 높게 평가 받은바 있음

녹십자랩셀/아티바 기술이전 가능했던 이유?

1) Cancer 타겟의 동종 CAR-NK 세포치료제 플랫폼 구축

→ 키트루다로 면역항암 분야 1위 입지를 다진 MSD지만 세포치료제 분야에서 R&D 또는 M&A 활동 부족했음. 최근 동종 CAR-NK 세포치료제가 항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어 포트폴리오 보강 차원에서 기술이전 계약 이루어졌을 가능성 높음

2) 녹십자랩셀/아티바의 GMP 생산 시설을 통해 대량 생산까지 가능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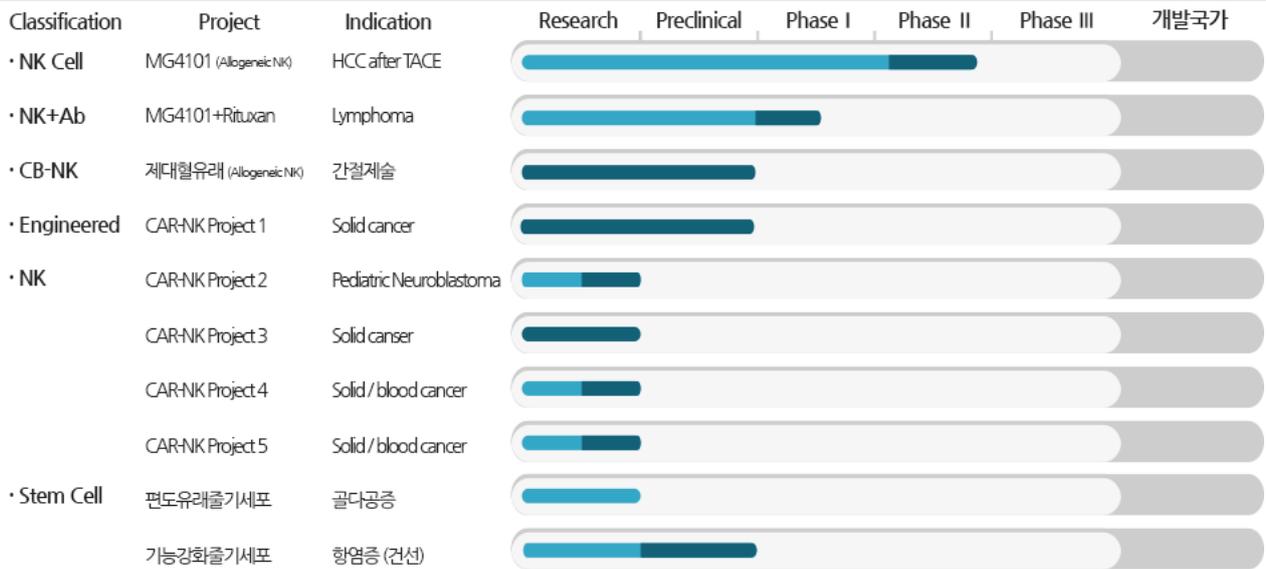
→ 향후 상업화까지 고려시 안정적인 제품 공급을 위해 이미 GMP 수준의 생산 시설 보유한 녹십자랩셀 선택했을 가능성 높음

결론: 세포치료제 관련 업체에 관심 가질 것

-'20년 ASH(혈액항암학회)에서 Fate Therapeutics의 임상 결과 발표 이후 동종 CAR-NK 세포치료제 분야에 이목이 집중된 상황

-국내 NK세포치료제 및 CAR 플랫폼 관련 업체인 녹십자랩셀과 함께 애플론, 유틸렉스, 엔케이맥스 등에 주목할 필요 있음

그림1 녹십자랩셀 파이프라인 현황



자료: 녹십자랩셀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2 Fate Therapeutics 주가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그림3 Nantkwest 주가 추이



자료: Bloomberg,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.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.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, 대여, 배포 될 수 없습니다.